

석유시장, 메이저 위축 주목된다!

PIW, 내실경영으로 중견기업 부상 ... Petro-Canada는 8계단 꺾춤

준 메이저 및 신흥 석유기업들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가 2002년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 <세계 50대 석유기업(PIW Top50)>에 따르면, Petro-Canada는 2001년 47위에서 8단계 올라 39위를 기록했고 러시아의 Lukoil과 Yukos는 5-6단계씩 뛰면서 각각 20위와 26위에 올랐다.

2002년을 전후해 초대형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등장으로 국영 석유기업들이 위협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2002년에는 준 메이저급 Total, ConocoPhillips, Repsol YPF와 말레이시아 Petronas, 러시아의 Lukoil과 Yukos와 같은 중견 석유기업들이 점차 떠올랐다.

중견급 석유기업들의 순위가 오르면서 알제리 Snatrach, 나이지리아 NNPC, 리비아의 NOC 등 OPEC 회원국 국영석유기업들은 순위가 점차 하락하고 있고 다른 국영기업들 역시 현상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석유기업들도 2002년 경영실적이 2001년에 비해 좋아져 미국기업 11개, 영국기업 3개 등이 대거 50위 안으로 진입했다. 2002년 순위에 든 29개 국가 중에는 미국기업이 11개로 가장 많이 순위에 올랐으며 이어 러시아가 8개, 영국이 3개, 중국, 노르웨이, 캐나다가 각각 2사씩 순위에 올랐다.

1980년대 후반 50위권 미국기업은 15개였으나 1990년대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새로운 석유기업이 탄생하고 여러 차례 합병이 발생해 2001년에는 단 7개에 불과했다.

사우디 Aramco가 1위를 기록했고 ExxonMobil과 PDV이 2, 3위를 유지하는 등 6위까지는 2001년과 변동이 없었으나 전통적으로 상위에 랭크되던 산유국 국영석유기업들은 순위가 점차 밀려나는 추세이다.

주 원인은 준 메이저 및 중견 석유기업들의 정제능력과 제품판매 등 Downstream 사업의 확장과 함께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세계 석유기업 Top12(2002)

(단위: 10억bbl)

순 위	PIW	회사명	국영화	매장순위
1	29	Saudi Aramco	100%	1
2	36	ExxonMobil	-	14
3	39	PDV(베네주엘라)	100%	5
4	43	NIOC(이란)	100%	3
5	45	RD/Shell	-	17
6	54	B P	-	19
7(8)	77	ChevronTexaco	-	21
8(7)	80	Pemex	100%	8
8(9)	80	Total	-	23
10	82	PetroChina	90%	15
11(12)	110	KCP(쿠웨이트)	100%	4
12(13)	111	Conocophillips	-	27

특히, 민간석유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합병 및 민영화 조치 등으로 더욱 역동적인 기업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Upstream과 Downstream 실적에서 민간기업과 산유국 국영기업간의 차이가 두드러져 석유 생산량에서는 상위 10개 가운데 6개가 산유국 국영기업이고 6사의 산유량이 10위까지의 총 산유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PIW는 매년 말 석유기업들의 전년도 실적은 지수로 평가해 기업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수가 낮을수록 우수기업으로 평가되며, 평가항목은 자원매장량, 생산량, 정제능력, 제품판매량, 수익 및 자산가치, 고용의 6가지로 구성된다.

<Chemical Journal 2004/03/26>